

리뷰-〈조덕현 : re-collection〉전

두여성의 삶을 통한 세상 읽기

레이디 로더미어(Lady Rothemere)와 노라 노(Nora Noh),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7월 5일까지 서울 국제갤러리에서 열렸던 설치 미술가 조덕현 이화여대 교수의 개인전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의 이름이다. 두 여성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한 컬렉션 형태의 프로젝트로 사진처럼 정교한 회화 작품들을 비롯해 무한한 반영을 통해 인생의 유전을 암시하는 벽면 거울 설치 작업 및 사진, 영상 작품 등이 전시됐다.

에디터 하유정 사진 노현우 자료 제공 국제갤러리(02-733-8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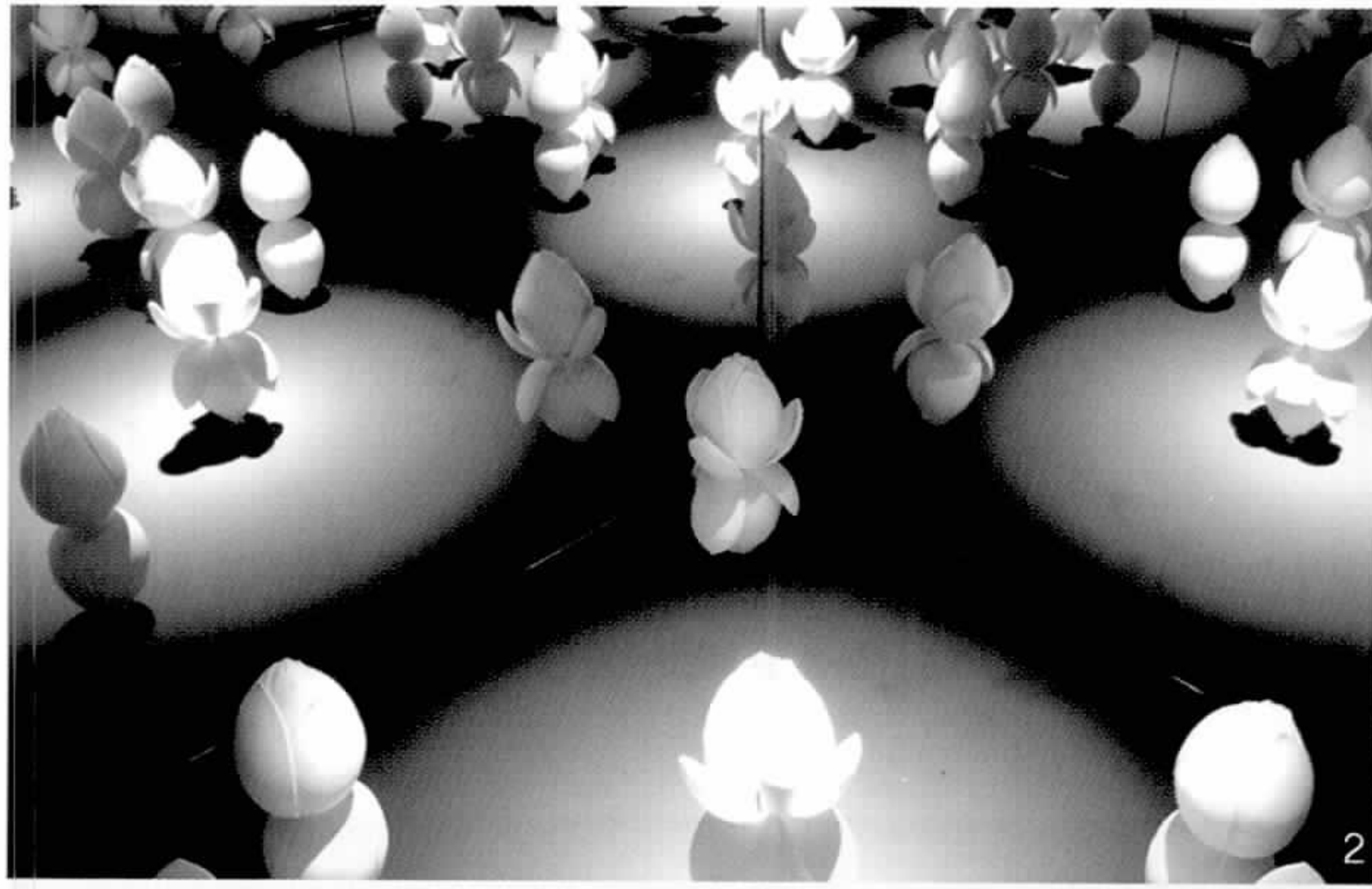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1층과 2층, 계단을 두고 엇갈린 방에 서로 다른 여성의 모습이 나타난다. 노라 노(Nora Noh)와 레이디 로더미어(Lady Rothemere)는 비슷한 시대를 살았지만, 한국과 서구라는 공간적인 거리만큼 다른 삶을 산 여성들이다. 이 두 여성의 이야기가 층을 달리해 전시장에 서술된다. 대화를 나누듯 두 여성의 그림이 마주한 입구 공간을 지나면 샹들리에와 식물 모양의 벽지가 어느 집 거실에라도 들어선 듯 정겹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방을 만나게 된다. 오래된 앨범을 들추듯 방 안에는 노라 노의 앨범에서 골라낸 각기 다른 사진들이 그녀 삶의 다큐멘터리가 되어 전시장 벽을 장식하고 있다. 1947년, 19세의 나이로 이혼한 그녀는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러 미국으로 떠났는데, 2년 뒤 귀국할 때는 선구자였던 부모와 마찬가지로 그녀에게도 '최초의 여성 패션 디자이너'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계단을 올라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지만 서로 다른 여정을 걸었던 레이디 로더미어, 이정선의 이야기다. 이정선의 인생 여정은 그 호칭만큼이나 신비롭다. 계단을 올라서면 어둡한 조명에 서늘한 느낌마저 주는 공간을 만나게 된다. 벽면에는 시점이 멀리 이동한 풍경이 스크린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세히 보면 산수화처럼, 점 같이 작은 인물이 풍경 속에 나타난다.

승려다. 고요한 풍경과 달리 승려는 분주하기만 한데 스크린이 돌아갈

때마다 매번 오른쪽에서 나타나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 승려는 왼쪽 지점에 다다르면 무릎을 꿇고 땅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땅을 뒤져 그가 찾는 것은 오래 묻혀 있던 연꽃이고, 그의 발굴은 실체가 되어 전시장 안에서 피어난다.

또 어두운 전시 공간 한쪽에는 신비스러운 검은 사각 공간이 마련돼 있다. 등신대 크기의 사각 공간은 우물처럼 안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고 고개를 떨구어 내려다본 공간에 흰빛의 연꽃이 놓여 있다. 안쪽이 거울 처리된 그 상자에서 연꽃은 사방으로 수십 개 복제되어 피어난다. 거울의 매끄럽고 차가운 표면이 수면을 연상시키는 그 상자 안에 승려가 땅에서 발굴한 연꽃이 기적처럼 수십 개의 꽃봉오리로 피어나는 것이다. 연꽃은 지나간 기억을 물고 오는 이미지다. '로더미어 컬렉션'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2층 전시장에 실상이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면을 더듬듯 이 방은 레이디의 사적인 기억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새로움과 바깥을 갈망했던 한 여성의 삶과 이국의 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한국과 자신의 전통을 그리워하는 또 다른 여성의 삶을 한 지점에서 만나게 했다. 즉, 겹겹의 세월이 느껴지는 빛바랜 사진을 그대로 옮겨 그린 초상화와 영상 작업을 통해 두 여성의 경험과 기억을 조각조각 이어 붙여 허구의 이야기로 재해석한 것이다. ☺



1 상들리에와 식물 모양의 벽지가 인상적인 1층 메인 갤러리에는 초상화 한 점 한 점의 구도와 그림을 건 배치까지 치밀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 2 2층의 연꽃 전시물은 안쪽이 거울 처리되어 사방으로 수십 개 피어 있다. 이 연꽃은 스크린 속의 승려가 땅에 묻은 연꽃과도 연결되고, 이 연꽃은 다시 1층에 마련된 노라노 컬렉션의 벽지 무늬로도 나타나고 있다. 3 갤러리 입구, 통로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듯 마주 보고 있는 노라노와 레이디 로드미어는 실재를 넘어선 공간에 서있다. 4 조덕현 작가는 전시된 그림을 보면서 관람자가 다양한 해석을 하길 바란다. 중간 중간에 의도적으로 텅 빈 액자를 건 것도 그런 이유다.

Interview

이번 작품은 언제 작업한 것들인가? _ 이번 전시의 작업은 '물리적으로' 올해 초부터 제작했지만, 그 밑 작업은 2006년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Reflection의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때고, 로드미어 자작 미망인을 만난 것도 그때쯤이다. 그 후로 유사한 작업들을 통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노라노 선생님과 자작부인을 작품의 소재로 선택한 이유는? _ 노라노 선생님과 레이디 로드미어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산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평범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생로병사나 희로애락애오욕 등 보편적인 삶의 기제들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것이 조금 두드러지게 보여서 모델로 선택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무엇보다 자료가 풍부해서 이끌린 것이 가장 크다.

같은 인물의 좌우 대칭 구도, 이유가 있나? _ 그러한 '거울구조' 가 이번 전시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길 바란다. 관람자의 해석에 대해 작가가 그렇다, 아니다 하고 판단을 고집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작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 간단한 팁을 말하자면, 우리는 거울(같은 물건)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의 모습(특히 얼굴)을 보고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존재론적인 시사가 압축되어 있다. 우리의 삶이란 끊임없이 거울을 통해 비쳐 보이는 자기 자신을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거울'이란 실제의 그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그 개념을 대체한다. 그중 하나가 우리의 기억이다. 이렇듯 '거울'이란 존재론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구조라고 본다.

이번 전시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_ 전시를 준비하면서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져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오랜만의 전시인데(서울에선 8년 만이고, 국내에선 6년 만이다) 작가의 존재를 잊지 않았다는 징표들을 만날 때마다 사무치게 고마웠다. 앞으로는 시간의 부담을 덜고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_ 신선한 질문이다. 나의 일생을 한참 뒤돌아보게 하는... 워낙 어려서부터 함께한 것이 그림이라 그림이 나를 선택했는지, 내가 그림을 선택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다. 자명한 것은 그림을 그리지 않는 나는 그야말로 불품없는 존재라는 것.

작품의 영감은 주로 어디에서 얻는가? _ 딱 두 가지 경험에서 온다. 하나는 작업실 주변의 야산을 산책할 때, 약 1시간의 산책을 마무리할 시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혼자서 술 마실 때.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두 가지 경험이 서로 돕는다는 것이다.

작가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어려웠던 적이 있나? _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내용이야 어찌 됐든 전시를 열게 된 사실이 기쁘다.

다음 전시 프로젝트가 있나? _ 국내의 그룹전들이 뿔뿔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전시회 준비를 위해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버린 아이디어들을 다시 검토해 다른 개인전을 통해 프로젝트화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